

성장단계별 지원·지역별 특화업종 육성 포함 입지특성 유형별로 산업정책 차별화 바람직

서울시 법인사업체 창업의 공간분포·입지결정요인 기초자료 구축할 시점

지역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생성, 기존 기업의 확장, 외부 기업의 이전 등이 있으며, 이 중 서울시는 ‘창업’에 의한 지역 성장이 활발한 편이다. 창업은 지역의 고용성장과 혁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생계형 중심의 개인 창업보다는 혁신과 연관된 법인 창업이 서울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창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하여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및 각종 창업지원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을 발표(2018년)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산업 활동의 집적과 분산 등 입지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법인 창업의 공간분포 및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창업지원시설의 추가 구축과 관련해서 창업지원시설의 대다수가 후보지를 물색 중인 단계이므로 산업별 집적지를 행정동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지 및 방향 결정에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집적지·비집적지 간 시너지효과, 50.3%는 “있다” 23.1%만 “없다”

산업 정책에서 집적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산업별 집적지와 비집적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실제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QGIS를 통해 도출한 산업별 집적지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89개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집적지가 비집적지와 비교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나라는 질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50.3%였으며, '시너지가 없다'라는 응답은 23.1%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입지특성에 따라서는 집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법인이 느끼는 시너지 효과(64.9%)가 비집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법인(38.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집적지 소재 창업 법인의 98.1%가 이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집적지의 87.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시에는 산업별 집적지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집적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정책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동 424개 중 일부 행정동에 법인 창업 집적지 몰려 '쏟림현상 심각'

서울시 산업별 입지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행정동 총 424개 중 역삼1동을 포함한 일부 행정동에 대부분의 산업별 법인 창업 집적지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삼1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도심지 일대와 가산동, 구로3동을 기반으로 하는 G밸리 일대는 서울시 전체 창업 법인의 25.7%(16,127개)가 몰려있고, 업종 측면에서도 소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일부 집적지의 경우 강남 지역이나 G밸리와 달리 1개 또는 소수 업종에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형태가 있었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산업 불모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도심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고유의 집적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창업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신산업과는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법인의 지역별 집적형태·산업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

서울시 창업 법인의 지역별 집적 형태와 도심제조업의 특성을 유형화하면 5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형 1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창업이 활발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적으로는 역삼1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도심권 일대와 G밸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 2는 최소 1개 이상의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이 형성되어 있고, 창업으로 새로운 피의 수혈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 금융 산업의 여의동, △ 방송, 영상 관련 산업의 상암동, △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관련 산업의 서

교통, △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제조업은 별도)의 명동 및 종로 등이 있다. 유형 3은 기존에 산업별 거점이 형성되어 있으나 창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도심제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의 도심제조업으로는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 등이 있다. 그 중 의류·가죽·봉제는 성수2가3동 중심의 성수동 일대, 귀금속은 종로 일대, 인쇄는 필동 등 을지로 일대, 기계는 구로, 문래동 등 서남권 일대에 업종별 고유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 4는 기존에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 및 인지도는 낮으나, 최근 창업이 두드러지면서 신흥집적지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양재2동, 세곡동, 문정동, 문래동, 신정4동, 목1동, 공항동, 방화3동, 가양1동, 등촌3동, 신월3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 5는 산업 불모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유형 1부터 유형 4까지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강북 지역 중 일부 행정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1: 특정업종 창업단계 기업보다 ‘창업초기→성장→회수’단계별 지원

유형 1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도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업종의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만을 지원하기보다는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지역으로는 강남 도심권 일대(역삼1동 및 그 주변 지역)와 G밸리(가산동, 구로3동)가 해당된다. 성장단계는 크게 ‘창업 → 성장 → 회수’로 나눌 수 있다. 창업 단계의 지원 대상에는 아이디어 실현 단계에 있는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이 해당될 수 있다. 창업 공간, 창업 교육 및 멘토, 소규모의 창업 자금,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그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또는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자금, 기술, 경영 측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인데, 각종 규제 해소 및 제도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형2: 산업집적지별 특화업종 집중 육성...상암동은 방송·영상산업 해당

유형 2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산업 집적지별 특화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지역 및 지역별 산업을 살펴보면, △ 여의동(여의도)은 금융 산업, △ 상암동(DMC)은 방송, 영상 산업, △ 서교동은 출판, 영상 및 오디오 산업, △ 명동 및 종로는 관광·마이스(MICE)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집적지 특성을 보이는 지역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 요구된다.

유형3: 기존 앵커시설 역할 강화하고 혁신모델 연계한 新비즈니스 지원

유형 3은 도심제조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집적지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다. 그러나 도심제조업의 창업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창업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앵커시설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로는 △ 시제품 개발, 제조, 양산과 관련된 아웃소싱 매칭 지원, △ 플랫폼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C2C, B2C 사업 기회 제공 지원 등을 제안한다. 대표 지역으로는 성수2가3동 중심의 성수동(의류, 신발 및 가죽, 인쇄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 집적), 종로 일대(주얼리), 필동 등 을지로 일대(인쇄), 구로와 문래동 등 서남권 일대(기계) 등이 있다.

유형4: 최근 창업 활발한 업종, 지역 주력산업 육성...문래동, 방송업 해당

유형 4는 기존에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 및 인지도가 낮고 산업 기반 또한 미약한 지역이지만 최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은 최근 창업이 활발하게 시작된 업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행정동 및 산업을 살펴보면, 양재2동, 세곡동, 가양1동, 등촌3동, 신월3동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도매 및 소매업)'이, 문정동은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부동산업', '각종 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문래동은 '방송업'이, 신정4동과 목1동은 '통신업'이, 공학동과 방화3동은 '수상 운송업(운송업)'이 최근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5: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 문화적 역량과 연계해 산업정책 수립

유형 5에 해당하는 산업 불모지에는 동북권과 서북권의 대다수 행정동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여 산업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특히, 강북 지역에 밀집해있는 ‘대학교’는 인적·물적·지적·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지역의 대표적 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대학의 특성화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업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5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업 육성은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 사업을 경제정책실의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수정 및 보완하여 지역 산업 육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G밸리, 양재·개포 등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5개 유형 관점에서 재평가

서울시는 2019년 1월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에서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을 5개 유형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G밸리와 양재·개포 지역은 유형 1에 해당되어 업종별로 지원하기보다는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MC, 마포·여의도 지역은 지역 내 소수의 특화산업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마곡은 산업단지 내 선도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로 유형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산업거점별로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므로 현재의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릉은 산업불모지인 유형 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홍릉은 바이오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 대학 및 병원들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홍릉 주변 고려대, 경희대 등의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바이오의료 관련 테스트베드를 육성해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단, 창동·상계 지역의 경우 바이오 관련 산업 기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과 역량도 현재까지는 미흡하게 나타나고, 홍릉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창동·상계를 홍릉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